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96 전반기 성경연구원 각강좌 일제히 개강

3월 9일(토) 개강예배로 시작, 7월 21일까지 강좌별로 교육

매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성경연구원의 '96전반기 성경연구원 강좌가 3월 9일(토)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일제히 개강된다.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25일)부터 3월 9일(토)까지 교육국으로 원서접수를 하면 되는데, 실시과정별 강좌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성경공부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

• 강의실: 교육관

• 교과목: 크로스웨이 제이권(화, 오전 11시), 귀납적 성경연구(갈라디아서, 화, 오전 10시), 모세오경(창세기, 화, 오전 11시), 선지서(이사야, 화, 오전 10시), 서신서(로마서, 목, 오전 10시), 에언서(요한계시록, 목, 오전 10시), 교회사(종교개혁사, 목, 오전 11시)

(2) 양육훈련 과정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와 수요일 오후

• 강의실: 교육관
• 교과목: 기존 2년차(화, 오후 7시), 기존 2년차(화, 오전 10시), 기존 반년차(수, 오후 8시), 신입반(수, 오후 2~3시)

(3) 직분자 교육반

•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 강의실: 교육관
• 교과목: 구역장반(수, 오후 1~2시), 권사반(수, 오후 1~2시), 안수집사반(수, 오후 8~9시)

(4) 44기 교사 양성부

• 교육시간: 주일반 - 매주일 15:00~16:50
화요일반 - 매주 화요일 19:00~20:50
• 강의실: 교육관 307호
• 교과목
제1교시 / 모세오경, 시서, 기독교 교육, 교사론, 복음서, 바울서신,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전도론, 상담심리, 교회와 사회봉사, 새신자양육, 예배론, 청지기론, 학습지도법
제2교시 / 역사서, 선지서, 기독교 교육, 교사론, 복음서, 바울서신, 인간론, 구

원론, 종말론, 선교론, 상담심리, 교회와 사회봉사, 새신자양육, 교회음악, 청지기론, 학습지도법
교생실습(4주간)

(5) 14기 찬양대원 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 강의실: 베다니홀
• 교과목
제1교시 / 주일 15:00~15:50
교회일꾼의 자격, 합창호흡 및 발성, 음악이론, 찬양대원의 영성, 중급시창, 고급시창, 합창웍샵, 성경에 나타난 찬양
제2교시 / 주일 16:00~16:50
영적예배와 찬양, 초급시창, 은사와 봉사, 중급시창, 고급시창, 합창웍샵, 찬양대원의 자격

(6) 4기 교사 연장교육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 강의실: 교육관 301호
• 교과목
제1교시 / 주일 15:00~15:50
모세오경, 시서, 복음서, 서신서, 전도론, 기독교교육, 교회음악, 새신자양육,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상담심리, 교사론, 기도론, 교회와 사회봉사, 연구수업

제2교시 / 주일 16:00~16:50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선교론, 기독교교육, 예배론, 새신자양육,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상담심리, 교사론, 기도론, 교회와 사회봉사, 연구수업

영어교육부 겨울성경학교

'96. 3. 1.(금), 가나홀에서

외국인과 선교에 관심있는 분
참여 환영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e 1996 Choonghyun One-Day Retreat will be held at the Cana-Hall of the Church on March 1(Friday).

We encourage any people who are interested as well as all the members of the English Worship Service participate on this special occas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Roger Nam at 595-8082.

24시간 연속기도회

이번 주 월요일 정오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제2교구,
토요일 정오부터 제3교구가 담당



지난 2월 21일(수) 정오에 제1교구 지도인 성봉환 목사의 지도로 '96년도 24시간 연속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24시간 연속기도회는 4월 21일(주일) 정오까지 총 60일간 나사렛홀 입구에 있는 24시간 연속기도회실에서 계속된다.

갈릴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엘리야처럼, 이번 기도회를 통해 권능받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영적 대적들을 물리쳐서, 승리의 개신가를 부를 수 있는 이 민족과 우리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96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

25일,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본 교회 도서장학회에서는 1996년도 상반기 장학금 명단을 발표했다. 장학금은 2월 25일,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지급되는데 아래에 명기된 장학생들은 4시 30분까지 교회에 도착하여 지정된 앞자리에 착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야 한다. 이날 반드시 본인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하며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상반기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육천팔백구십오만원이다. 금년도 상반기에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신학원 장학생

이준경 박노철 남상범 박인기 염현일
허정애 허 경

■ 충현 장학생

대학생 / 전이배 송선희 송혜란 박윤경
전광성 손지영 최윤정 한정숙 박미애
박경민 황은신 신혜령 임성이 송정목
김광석
고등부 / 유상협 구혜경 김정아 윤철중
조혜영 윤이향 고재영 최연주 김신남
곽은영 안의정 강석천 정시은 배상희
구세진 박병규 유지성 김수정 이덕용
김한석
중등부 / 정재욱 장성재 홍진방 임지용
지은경 장정은 최미희 장혜영 김선미
이진정 정혜리 조준기 허예스더 강미란

김현경

에바다부 / 최형원

■ 소석 장학생

최정락 문혜원 양자영 이문자 전홍배
안명철 박수진 강영림 임나영 이요한
오지현 김혜영 최은정 장상원 박은영
윤한서 김현경 김 록 김정우 이은선
조정혜 김현아

■ 충현 사랑의 장학생

김범수 강태형 김권연 조용수 소혜진
손윤경 이지현 조성경 박상희 김소영

■ 위탁장학생

박재범 이성권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무신론자

(시 14:1-7)

본 시편의 저자의 환경은 시편 12편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 장군이 반역자로 몰려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심 황무지에 숨어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자기들만이 가장 애국자이며 충신인 것처럼 의로운 다윗 장군을 고발했습니다. 이럴 때에 시편 12편과 함께 지은 것이 시편 14편입니다.

1. 인생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어리석어서 범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14:1)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간적으로 지식이 없는 무식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 그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전하시는 지구덩어리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기차를 만든 사람도 없고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강한 자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은 양심도 없고 도의도 없이 무서운 죄를 함부로 범합니다.

(2) 부패해서 범죄합니다

"저희는 부패하고"(14:1)라고 했습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어느 부분 안 썩은 부분이 없이 몽땅 썩었다는 말입니다. 썩은 나무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에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부패한 인생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지 회사의 중역이 된다면 나라의 장관이 되면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큰일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썩으니 썩은 말을 하고, 썩어빠진 일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욕이 되고 남에게는 손해가 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천대받고 버림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썩어진 나무를 두드려 보고 아는 목수가 '이것을 못 쓸 것이다' 내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3) 가증해서 범죄합니다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14:1)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이라는 말은 사람이 많다고도 어느 면에 고운 면도 있겠는데 아무리 뒤집어 보고 뜯어 보아도 매운 것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가증한 무신론자의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에게 팔리어 졸도가 된 인생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어떻게 있겠으며 혹시 선을 행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어찌 선을 행할 실력이 있겠습니까. 두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그래도 고마운 것은 거지가 되었고 망신을 당했고 고생하다가 죽게 된 시간

에 비로소 자각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것이 자각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에 낮아지는 본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생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아는 것입니다.

(4) 세상 사람들을 일곱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찾아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해버리는 무신론자의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찾지 않고 복은 받고 싶으니까 미신을 찾아 마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미신보다 더 권세나 돈, 명예 등등 세상의 것만 따라가며 다른 것은 생각조차 안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생활은 세상의 돈과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찾는데 임시적으로 찾고 변동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입니다. 일곱째,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헌신된 겸손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지시며 만사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2.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합니까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14:5-6)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날을 정하셨다가 잠잠 놀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을 줄지에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병거를 탄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중간쯤에서 갑자기 하늘에까지 솟아올라 가로섰던 물 담벼락이 스스로 무너져 내려와 그들을 수장했습니다. 이때 아우성치며 물속에 빠져들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났는데 다니엘을 모략하던 사람들이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움을 받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 그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전하시는 지구덩어리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기차를 만든 사람도 없고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서 역울함을 당하는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 버리시거나 몰라서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시키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상급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연단 잘 받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고, 상급 받을 기회에 일 잘하고 믿음 잘 지키면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을 만나는 시간에도 벌써 피난처 속에 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3. 구원은 시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14:7)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바벨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애굽이나 앗수르에 있지 않고 시온에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앗수르의 포위에 갇힌 히스기야 임금님은 인간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히스기야의 구원은 애굽에도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구원은 바벨론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앗수르 앞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히스기야의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니까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뽐내고 세계를 다 점령한다고 각 나라 신을 제주하고 밭아 버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올 때에 칼을 하나 뽑아본 사람이 없이 원수 18만 5천명이 다 태풍 앞에 하루살이 떼처럼, 홍수 앞에 구덩이처럼 없어집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내려오면 야곱이 즐거워 하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약자라는 말입니다.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역울함을 당하고 매맞고 끔찍 못하는 약자가 해방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승리자의 기쁨이 넘쳐났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인 줄 알

았더니 즐거워한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신자는 사람보기에는 야곱처럼 약하지만 세상을 이긴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볼 때에 야곱인 줄 알고 밭아 버리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꿈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오면 해결이 됩니다.

심 황무지의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만이 충신인 것처럼 고자질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 못된 것들' 칼을 뽑아들고 죽여 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불쌍해 합니다. '저것들이 한 번은 와들와들 떠는 날이 오겠구나' 내가 야곱처럼 쫓겨 다니지만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처럼 개신가를 부르고 궁궐에 있을 날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은 다윗이 얼마 있다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만능시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생활로는 돈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주머니끈을 못 풀니다. 또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까지 폭차 버린 세상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미련해져서 흉악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책임에 충성하는 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바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어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아질 줄 아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면서 책임에만 충실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을 주실 것이니 야곱처럼 천대 받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야곱처럼 업신여김 받던 사람이 이스라엘처럼 승리의 개신가를 부르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족에게 오기를 소원합니다.

◆ 낙도 선교를 마치며 ◆

‘와서 우리를 도우라!’

최요셉

(대학부 회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우리는 사역지를 향해 가는 배 속에

고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었다.

연흥도, 허우도를 지나 드디어 비견도에 도착을 했다. 나를 포함한 6명……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선창가에 둘러서서 하나님께 비견도를 의탁하는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섬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뿌리에 싸움을 걸었다.



서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바다와 섬의 조화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른 MT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만드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을 사랑하시

본격적인 싸움의 첫날이 밝았다. 우리는 새벽기도회를 통한 기도와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무장하고 축호전도에 나섰다.

벽… 전도를 시작한 후 사람들에게서 느낀 영적인 상태였다. 몇 안되는 열린 마음의 사람을 만날 때면 어김없이 방해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오후시간이 되면 서부터 우리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누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확실했다. “나는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 이곳에 나의 택한 자들이 있음을 알아라.”

이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더욱 담대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을 너무나도 적절한 환경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그 땅을 300년, 아니 그 이상 지배하고 있던 불교라는 거짓 진리로 무장한 사탄의 세력들이 참빛 앞에서 그 꼬리를 감추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

다.

마지막 축호전도 때 은애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내왔던 환경과 친인척으로 연결된 섬이라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 때문에 소의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등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했었다. 정해진 시간들이 지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은애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름에 꼭 한 번 더 와.”

아무도 배웅을 하러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견도를 뒤로 하고 떠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비견도의 모습을 꿈꾸게 하셨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이 더디온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구원할자 구원하고 회개할자 회개하면
반갑게 오시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통일이 늦어진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민족의 쌍인죄악 눈물로 회개하면
꿈같이 임하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의 응답없다고 낙망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사숙고 하신다오
만사에 때가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전도의 열매없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눈물로 뿌린씨앗 웃음으로 거두리니
농부의 인내를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세상이 괴롭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잠시잠간 지난후면 주님이 오시리니
말은 일 최선을 다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박철구 (집사, 중동2부 부감)

충현의 가족 여러분의 얼굴을 가슴으로 그리면서 눈부신 새해의 기도제목을 하나 둘 적어 보았습니다. 아픔의 시간들이 믿음으로 승화되고 감격 속에 광활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행군하는 충현의 대행렬에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며 큰 승리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해이기에 주님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이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가슴을 드러내며 정말 맑고 향기로운 기도, 푸르디 푸른 기도, 무르익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 2:22)라는 말씀처럼 새해 초하루 이른 새벽에 주님은 시급한 기도제목을 제시하시며 서두르셨습니다. 저의 근시안적 시야를 멀리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인과 함께 생겨진 155마일 군사분계선. 이제는 다 굳어져버린 남북 분계선, 철조망마저 녹슬고 얼어붙은 분계선 그 이북의 땅(지도)이 나의 시야에 전개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은 그 동토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알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스산하게 깔려 있는 그 땅이지만 주님은 은밀히 당신의 백성들을 초막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니다 읊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를 연발하며 주님의 뜨거운 소원은 분계선 이남에만이 아니라 이북 동토의 땅에도 있음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충현의 가족 중 이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 어디 있으리요마는 나의 기

되어 저 만년설처럼 오래오래 쌓여만 있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속에 생존하신 이산가족들의 두 뺨에는 흐르던 눈물도 말라만 가는데. 아니 아니요. 그 뜨거운 눈물은 가슴속으로 스며 흐르더니 지금은 그 눈물이 피되어 심장에 고여 흐르니 통일의 열망만이 높아만 간답니다.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첫째는 혈벗어 떠는 내 형제를 위하여, 두번째는 굶주려 쓰러지는 내 형제를 위하여, 세번째는 병들어 죽어가는 내 형제를 위하여, 네번째는 학정에 시달리는 내 형제를 위하여, 다섯번째는 유리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할 때입니다.

봄기운에 산허리의 잔설도 녹아내리는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열풍같은 광선이 비추면, 그 태양빛에 녹지 않을 만년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저 철의 장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한 눈물의 기도 속에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질 그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땀어린 기도 속에 피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은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아멘.



정검다리

주님의 소원

정복인

(전도사, 제6-2교구 담당)

만큼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광경에서 깨어나 저는 한참동안 어안이 병병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의 말씀 앞에 쓰러져 “을습

도,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을, 믿음없는 기도를, 사랑없는 기도를 용서하옵소서. 고(故) 노산 이은상 박사 시집 ‘기도’ 중에(분계선 남쪽) “강둑에 주저앉아서 목을 놓고 울어버린다”는 시구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통곡의 소리는 지금 어디에……. 그 슬픈 소리가 설움이

토막소식

전도위원회 직능전도부 회장단 정기모임

25일(오늘) 오후 3시,
전도위원회실(선교관405호)

충현교회 전도위원회에는 각 남녀 전도회와 함께 직능전도부가 있다. 군전도회, 실업인전도회, 의료전도회, 법조인전도회, 매스컴전도회, 경찰전도회, 학원전도회, 특수전도회, 문서전도회, 교정전도회 등 직능전도부 각 분과 회장단의 정기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선교관 405호, 전도위원회실에서 있다.

각 분과 회장단은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각 1부를 지참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충현 전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많은 지혜를 나누기를 부탁하고 있다.

농어촌 교역자 및 군목 초청간담회

우리교회 각 남녀전도회에서 지원하는 농어촌교회 교역자와 군목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1996. 2. 26(월) 오전 11시
- 장소: 베다니홀
- 주관: 전도위원회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서평, 이런 일은 고칠시다, 각 부서 소식,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다만, 계간충현 봄호(3월말 발간 예정) 원고는 예배와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이나 개선해야 할 점, 은혜스러운 간증 등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우선

선별하여 게재하겠습니다.)

2. 원고마감 / ① 주간충현은 마감 없습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십시오.

② 계간충현 봄호 원고는 3월 3일(주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들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편지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별로 한 일은 없지만 성탄카드 발송과 연말연시로 조금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를 위해 96년도에 더 힘껏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며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성탄행사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이 월요일이어서 행사를 준비하는 저희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현지인교회와 한인교회가 각각 성탄행사를 치러야 하였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인 교회는 24일 저녁 5시부터, 그리고 한인교회는 현지인교회 행사후인 7시 30분부터 성탄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 교회의 성탄행사도 1, 2, 3부로 나누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3부로는 우리 현지인교회 교우들이 만든 음식들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것은 현지인 교우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식도 직접 만들어 오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저희들이 재료를 준비해 주기도 했지만 성장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지인 교회 성탄행사 참석자는 모두 170명이었습니다. 한인교회 성탄행사는 종전과 같이 가족별 찬양을 하였는데 새로운 것은 찬송전에 지난 1년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 많은 감사의 제물들을 성도들끼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는 한인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탄감사예배를, 현지인교회는 아침 9시에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고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년 0시에배

한인교회는 1996년 신년예배를 1월 1일 0시에 드렸습니다. 매년 12월이면 개들이 짹짹을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폭음탄과 폭죽을 터뜨림으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이 터지고 요란한 소리가 나므로 개들이 밝고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는 이곳에 있는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명절(특히 구정)에 귀신을 내쫓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큰 오락이 되었습니다. 큰 것은 초등학교 교사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터뜨리는 것을 볼 때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월 1일 새벽 0시가 되면 약 10분간의 불꽃놀이(?)는 모두가 구경하는 새로운 수리남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길벳과 낸시

12월 성탄행사 때 갑자기 길벳 형제와 그 가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탄 휴가를 지내고 돌아갈 때 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에 이성애 집사님께서 인편을 통해서 보내주신 약들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다른 지방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기름값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곳에 큰 딸을 할머니께 맡기고 막내 아들만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헌신 속에서 희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의 사랑을 읽게 되었습니다.

알았는데 이곳 구청과 같은 곳에서는 서류가 그대로 진행이 안되고 책상위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 서류를 올리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담당 장관의 결재를 얻게 되면 500평의 땅을 아주 조금씩 사용료만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편지에 부탁드린대로 허가와 설계, 공사와 좋은 협력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디언 촌을 방문

우리 한인교회 교인 중 나무를 수출하는 분이 벌목을 위해 여러 인디언들과 접촉하는 중 여기서 약 7, 8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마타(Mata)라고 하는 인디언 마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국회의원이며, 아이들이 약 200명 정도로 초등학교도 있고 교사들은 이곳 파라과리보에서 출퇴근하며 가르치고 있고 종교는 천주교로 교회당도 있는데 신부가

비가 내리기도 하여 날씨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어 교인들 중에도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주일 아침 비가 오면 상습 침수구역인 교회는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 매일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주일아침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리남은 경제가 조금은 안정이 되어 계속 400: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에 있을 대통령선거가 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게 됩니다. 선거후에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몇주일 동안 운전기사나 오지를 않아 저와 아내가 현지인 교인들을 태워오고 또 태워가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에 조금은 지장이 있습니다. 두 주전에는 현지인 교사와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한인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태워가는 중 바퀴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급하게 한인교인을 불러 아이들을 태워보내게 하고 급하게 바퀴를 갈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가족 소식

이곳 날씨 때문에 저희들 조금씩은 아프지만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아 감사할 뿐입니다. 아들 요한이는 영어학교에 잘 다니고 있지만 아직 공부에 대해서는 열심을 낼 만큼의 사명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말이 부족한 대도 잘 어울리는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딸 소영이와 위영이는 미국의 형님댁에서 잘들 지내며 공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내외분께서 친 딸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전 형수님으로부터 아이들 의료보험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형수님의 것으로 동거인이기에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온 가족이 보험을 드는 것이 두 딸만 드는 것보다싼 것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에서 가깝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좋은 해결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탄 카드와 선물을 보내주신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1996. 2.

수리남에서

안석렬, 이성옥, 안요한 올림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수리남의 모든 인디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이곳에서 저와 함께 길벳은 앞으로 지을 진료소에서, 아내 낸시는 학교에서 함께 일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들이 없으면 인디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좋은 믿음의 일꾼을 친구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심방 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인교회 대심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충현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성경강해를 직접 제작해 대심방 성구·찬송 등을 기록하여 나누어 주며 말씀과 순종의 삶을 나누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다 모여 대심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 가족이 다 대심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교와 진료소를 위해

지난번에도 교회 옆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다 끝난 줄을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순회신부는 2개월에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모든 인디언이 천주교인인데 반란군이 점령했을 때 천주교회당들을 다 파괴하여 신앙적 상태가 무종교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 영세들을 받지만 부모나 자식들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주고 교인수를 늘이기 위한 것이기에 저들의 영혼이 더욱 불쌍합니다. 천주교 교인으로 되어 있는 수리남의 모든 인디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방문한 마타족은 약 600명 정도로 거의 네덜란드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더 동역자들이 필요하며, 차량도 4륜구동의 정글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 이 지역은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리남 소식

요즘 수리남은 대우기로 하루 종일